

황종우 해수부 장관, 남동해수산연구소 방문해 현장 중심 수산연구 역할 강조

- 적조·고수온 등 수산재해 선제 대응과 미래 양식품종 연구개발 당부

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5일(목)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(이하 ‘남동해수산연구소’)를 방문하여 수산물 안전관리와 적조·고수온 대응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.

황 장관은 연구소 업무보고를 통해 기후위기 심화와 수산재해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, 벤자리, 개체굴 등 지역 특화 양식품종 연구개발 및 적조·고수온·해파리 등 수산재해 대응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.

황 장관은 연구진들을 격려하며, “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와 신속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”라고 강조하고 “적조·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미래 양식품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관	책임자	과 장	정기원 (051-773-5610)
	어촌양식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지수 (051-773-5622)
	국립수산과학원	책임자	소 장	이정호 (055-640-4700)
	남동해수산연구소	담당자	사무관	박종원 (055-640-4730)